

## 추모예식 ❁

고인을 기념하여 애도하고 추모하는 식을 추모예식이라고 한다. 추모예식을 통해 고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의 유지를 회상하는 가운데 교훈을 얻는 새로운 결심이 유족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족과 친족 및 친지들 간에 화목과 우의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고인이 별세한 날 하는 것이 좋고 시간과 장소는 가족의 합의 하에 하는 것이 좋다. 추모일이 주일과 겹치면 전날이나 다음날 하는 것이 좋다.
- 대상 범위는 직계에 한하는 것이 좋다.
- 추모예식은 고인의 자녀 생존시까지 함이 좋다.
- 고인의 가까운 친척들이나 친지들에게 추모예식이 있음을 알릴 수도 있다.
- 고인의 사진과 약력을 준비하고 생전에 녹음해 놓은 육성이나 녹화해 둔 것이 있으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 식전(단)을 꾸며 놓을 경우, 상위에 사진을 놓고 꽃으로 장식할 수 있다.
- 음식을 준비하되 진상(상차림)해서는 안 되며 추모예식 후에 나누도록 함이 좋다.

### ❁ 추 모 예 식 ❁

- |         |                                |       |
|---------|--------------------------------|-------|
| • 개 식 사 | 지금부터 고 ○○○씨의 ○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 집 레 자 |
| • 사도신경  |                                | 다 같 이 |
| • 찬 송   | 세월이 흘러 가는데(찬 534)              | 다 같 이 |
| • 기 도   |                                | 말 은 이 |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슬픔과 절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고○○○씨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가신 그 날이어서 유족들과 고인과 관계된 모든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고인을 통한 아버지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그 뜻을 펴지 못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인에게 다하지 못한 정(호도, 우정, 신의 등)을 생각하며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의 우리들, 죽은 이나 산 이들 모두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인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널리 퍼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           |       |
|--------|-----------|-------|
| • 성경말씀 | 히 11:1-13 | 말 은 이 |
| • 설 교  | 인생의 발자취   | 말 은 이 |
| • 기 도  |           | 말 은 이 |

인의 약력보고, 추모사, 유언이나 유서나 유물 소개 (가족중)

## 인생의 발자취

인생은 한 생애를 통해 발자취를 남기고 갑니다.

### 1. 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 하와, 가인, 가룟 유다 등은 죄의 발자취를 남기고 갔습니다.

### 2. 무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자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도 목표도 성취함도 없이 살았습니다.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무의미한 생을 살고 갔습니다.

### 3. 신앙인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빛나는 아브라함과 모세는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인류 구원의 성업을 남긴 발자취였습니다.

## 참고 기도문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 ○○○씨의 과거를 추모하면서 가족과 친지와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살아있을 때에 행한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을 자손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생은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풀과 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의 영광도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인의 모범적인 신앙의 본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에 축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